



# 이다연 KLPGA 효성 챔피언십 우승

2020 KLPGA 정규투어 개막전  
**HYOSUNG** Championship with SBS Golf

2020 시즌 첫 대회 11언더파 ... 개막전 여왕 등극  
이소미·최은우 추격 따돌리고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컵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효성 챔피언십 최종 순위

순위	선수	언더파	타수
1	이다연	-11	205(67 68 70)
2	이소미	-8	208(71 68 69)
3	최은우	-7	209(70 67 72)
4	한진선 이소영 이정민	-6	210(74 70 66) (71 69 70) (71 68 71)
7	임희정	-5	211(69 67 75)
8	최예림 이가영 최혜진	-2	214(75 68 71) (71 72 71) (70 71 73)

‘작은 거인’ 이다연이 2020 KLPGA 투어 첫 여왕으로 등극하며 1억 4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다연은 6-8일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6579야드)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에서 3라운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다연은 사흘 연속 선두를 달리며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으로 2020시즌 첫 승이자 개인 통산 5승을 기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효성 챔피언십은 효성이 지난 2017년 베트남 법인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에서 KLPGA 투어 대회를 열면서 시작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0시즌 KLPGA 정규투어 개막전으로, 새 시즌 판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회로 꼽힌다. 경기가 열

린 트윈도브스 골프클럽은 2013년 베트남 최고의 골프 코스로 선정된 곳이자 2015년에는 최고 클럽하우스 상을 받은 곳이다. 우승을 차지한 이다연은 2019시즌에 2번 우승하고, 6번에 걸쳐 2-3위에 이름을 올리며 시즌 상금 랭킹 3위를 기록한 실력파다. 지난 7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오픈 우승 기록과 함께 올해 해외 대회에서만 2승을 달성했다. 이다연은 이번 대회에서 3일 내내 선두를 달렸다. 1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작성한 이다연은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아 4언더파를 기록했다. 이다연은 2위 임희정보다 1타 앞선 채 마지막 라운드에 출전했다. 이다연은 3라운드에서도 버디 3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합계 11언더파

로 단독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다연은 2번홀, 4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넣으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최은우가 5, 6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기록하면서, 11언더파의 이다연을 2타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다. 승부의 행방이 갈린 것은 15번 홀. 버디를 잡아낸 이다연과 달리 최은우는 보기를 기록하며 4타 차로 벌어졌다. 이어 이소미의 추격이 시작했다. 1라운드 1언더파, 2라운드 4언더파를 치며 순위를 끌어올려 온 이소미는 14, 16,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며 2위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1위와 격차가 커 우승컵을 노리지는 못했다. 17번 홀에서도 보기를 적어낸 최은우는 합계 7언더파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라운드까지 1타 차이로 이다연을 뒤쫓던 임희정은 이날 최악의 하루를 보냈

다. 임희정은 3라운드에서만 버디 1개에 보기 4개를 기록, 3타를 늘리며 순위권에서 벗어났다. 최종 성적은 합계 5언더파로 7위. 또 2019시즌에서 대상, 상금왕, 다승왕 등 6관왕에 오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던 최혜진은 최종합계 2언더파로 공동 8위에 머물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8일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골프장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다연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흥민 70m 드리블 ‘원더골’ ... “마라도나 같았다”



손흥민이 8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70m를 홀로 드리블한 뒤 슈팅하고 있다. 손흥민은 8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12여초 만에 토트넘 페널티 지역에서 상대 골 지역까지 돌파해 골을 넣었다. 1987년 마라도나가 넣은 ‘20세기 최고의 골’과 유사한 이 골로 손흥민은 2020년도 푸스카스상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 EPL 번리전, 11번 터치·수비수 8명 제치고 기적같은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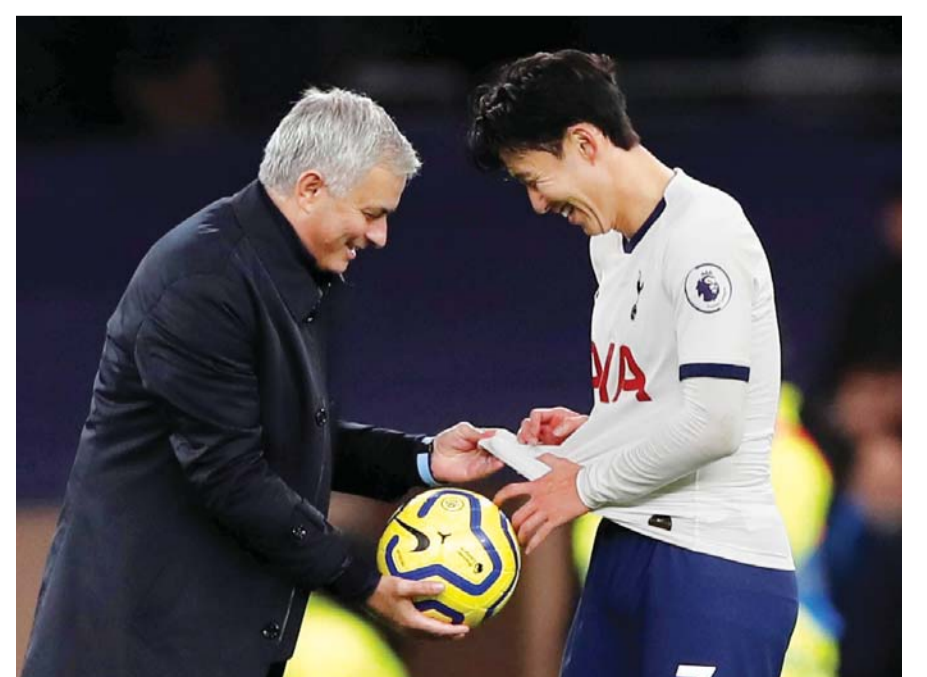
토트넘 5-0 승리 이끌고  
2020 푸스카스상 후보로

손흥민이 ‘전설’ 마라도나와 비견되는 그림 같은 원더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8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번리를 상대로 선발 출전했다. 손흥민은 1골1도움을 기록하며 팔필 날았다. 토트넘은 손의 맹활약으로 이날 번리에 5-0으로 압승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를 압도했다. 휘슬이 울린 지 5분만에 선제골을 터뜨린 것. 후반에서 하프 라인을 넘어 온 긴 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됐다. 손흥민은 원터치

패스로 해리 케인에게 볼을 넘겼고, 케인은 페널티 지역 밖에서 중거리포를 쏘아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됐다. 4분여 뒤 하프 라인 근처부터 골 지역 앞까지 쇄도하며 슈팅을 날렸으나, 골키퍼 발에 막혔다. 뒤통이나 볼을 알리가 헤더로 연결, 모우라가 마무리해 2번째 골을 완성시켰다. 전반 32분, 역사적인 골이 터져나왔다. 손흥민이 토트넘 페널티 지역 앞에서 볼을 잡았다. 역습 기회였다. 알리와 모우라가 패스를 받기 위해 자리를 잡았으나, 8명의 수비수가 포진해 있어 패스 연결이 쉽지 않아 보였다. 손흥민은 그대로 스피드를 올려 끝으로 쇄도했다. 몰려드는 수비수들을 하나 둘 제끼면서 순식간에 골 지역 앞까지 도달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 침착하게 골

키퍼 위치를 보며 오른쪽 슈팅을 꽂아넣었다. 손흥민이 볼을 잡은 지 12여초만에 터진 원더골이었다. 리그에서 술한 골이 터져나왔으나 가장 돋보이는 골은 단연 손흥민의 골이었다. ‘20세기 최고의 골’로 불리는 마라도나의 골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은 마라도나는 잉글랜드 수비수 8명을 제치고 50여m를 달려 골 지역에 도달, 원발 슛으로 골을 넣었다. 이 장면은 지난 2007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도 선보인 적이 있었다. 마라도나와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해 수비수 5명을 제치며 골을 넣었던 것. 손흥민이 토트넘 페널티 지역으로부터 골 지역까지 홀로 돌파한 거리는 70여m에 이른다. 마라도나가 원발만으로 11번 볼

터치 끝에 골을 넣었듯, 손흥민은 오른쪽 10번, 원발 1번 11번의 터치로 명장면을 다시 불러왔다. 이번 골로 손흥민은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나온 골 중 가장 멋진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푸스카스’를 수상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됐다. 2019년도 푸스카스상은 지난 9월 헝가리 출신 다니엘 조리에게 주어졌으며, 손흥민에게는 내년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손흥민은 이번 시즌 10골 9도움을 기록중이다. 지난 2016-2017 시즌부터 이어지는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다. 손흥민은 이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로 선정하는 ‘킹 오브 더 매치’(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축구통계사이트 ‘후스 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9.3을 매겼다. 10점 만점을 받은 해리 케인을 잇는 2위의 점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리뉴 “기념볼은 챙기셔야지” 조제 무리뉴(토트넘) 감독이 8일 기념비적인 원더골을 넣은 손흥민에게 이날 경기를 기념하는 매치볼을 건네주고 있다. /연합뉴스